

영·유아기 자녀를 둔 주부의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우울간의 관계에서 자기수용과 외로움의 이중매개효과*

정 미 현

강 영 신†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주부들의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외로움과 자기수용의 이중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광역시와 군 지역 각각 1곳에서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주부 3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중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과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외로움과 우울과는 정적상관, 자기수용과는 부적상관이 존재하였다. 둘째, 경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자기수용과 외로움을 통해 우울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고, 또한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결과적으로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자기수용과 외로움을 통해 우울에 영향을 주는 부분 이중매개 효과가 나타났다. 셋째,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자기수용과 외로움의 완전이중매개 경로를 대안모형으로 선정 한 후 연구모형인 부분이중매개와 비교하였다. 넷째,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을 카이제곱 차이 검증을 통해 비교한 결과 연구모형이 대안모형 보다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우울 간 관계에서 자기수용과 외로움이 부분 이중매개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가 갖는 의의와 한계, 제언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사회부과 완벽주의, 자기수용, 외로움, 우울, 주부

* 본 논문은 정미현의 석사학위논문(2013)을 대폭 수정하여 재구성한 내용임.

† 교신저자 :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500-757)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용봉동 300)

Tel : 062-530-2652 / E-mail : lavieenorose@jnu.ac.kr

현재 우리사회의 높은 물가 상승과 지나친 교육열,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가족구조의 변화는 자녀수의 감소현상으로 나타나지만, 오히려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과 부모 역할에 대한 요구 수준은 높아지고 있다(김기현, 2000). 부모 역할에 대한 지나치게 높은 요구는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안녕감을 낮추는 것으로 보고된다. 이러한 이유로는 어머니가 양육의 일차적인 책임을 가지게 되는 점과 어머니 스스로 어떠한 자녀로 성장하는가에 대한 과도한 책임을 느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간주된다(하오령, 권정혜, 2006; Veroff, Douvan, & Kulka, 1981). 결과적으로 어머니의 양육에 대한 지나친 책임감은 자녀 양육으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다(이주옥, 2008).

특히 영아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주부들은 자녀 양육으로 인하여 심리적, 정서적 피로감을 느끼고 생활이 자유롭지 못한 점에서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노지영, 황혜선, 2012; Kim & Kang, 1997). 또한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자녀가 부모의 보호와 관심을 여전히 필요로 하고, 유아기 발달 특성상 자아개념이 생기면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주장하기 때문에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보다 양육 스트레스를 더 높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김미숙, 2005; 박진아, 2011).

부모 역할에 대한 높은 요구와 지나친 책임감은 양육을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증가시킨다. 그로 인해 영·유아 어머니들은 '되도록 아이와 많이 놀아주려고 애쓰고, 좋은 옷만 입히고 싶고, 좋은 음식만 먹이고 싶고, 최고로 키우고 싶어 하며, 이른 조기교육으로 경제적 뒷받침이 안 되더라도 남들

보다 뒤떨어지지 않게 키우고 싶어'(신의진, 2011, pp. 28)한다. 이와 같은 어머니의 완벽주의는 양육 스트레스를 더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언급되고 있다(최향숙, 한세영 2011; Hewitt & Flett, 1990).

완벽주의(perfectionism)는 다차원적인 개념(Frost et al., 1990)으로서 도달하기 어려운 높은 기대 수준을 세우고 이에 도달하기 위하여 애를 쓰며, 인간의 가치를 생산성과 업적으로 판단하고, 남보다 탁월해야만 한다는 욕구로 인해 쉽게 자기 패배감을 느끼는 성격적 특성으로 정의된다(Hewitt & Flett, 1993). 완벽주의가 높은 사람들은 하찮은 결함도 실패로 느끼게 되어 우울, 죄책감, 자살 관련 느낌이 증가되는 경향이 있고, 의미 있는 타인이나 가까운 친구들에게 자신의 심리적 고통을 나누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매우 힘들어 한다(Blatt, 1995). Hewitt과 Flett(1991)은 완벽주의를 개인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측면도 포함하여 완벽행동이 향하는 대상과 완벽행동의 기준을 누가 부과하는가에 따라 자기지향 완벽주의(self-oriented perfectionism), 타인지향 완벽주의(other-oriented perfectionism), 사회부과 완벽주의(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로 분류하였다.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자신에게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세우고 자기의 행동을 엄격하게 평가하는 경향을 가리키며,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높은 사람의 경우 이상적인 자기와 실제적인 자기의 불일치로 인해 낮은 자존감, 우울, 불안 등의 부적응적인 양상을 보일 수 있다(Higgins et al., 1986; Strauman, 1989). 타인지향 완벽주의가 높은 사람은 자신의 비현실적인 기대와 기준을 가족, 친구, 애인 등과 같은 의미 있는 타인에게 부과하고, 그들의 수행을

엄격하게 평가한다. 따라서 타인이 자신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때 상대방을 비난하며, 상대방에 대한 신뢰감이 결핍되어 적대감을 형성하므로 대인관계에서 좌절을 경험하기 쉽다. 반면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의미 있는 타인이 자신에게 비현실적인 기준을 부여하고, 자신을 엄격하게 평가하며,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자신을 거부할 거라는 신념과 지각을 반영한다. 따라서 높은 수준의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이로 인한 무기력감, 분노, 불안, 우울,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외로움, 낮은 자존감과 정적상관을 보인다(e.g., 홍석인, 현명호, 2007; Chang et al., 2008). 또한 Flett, Hewitt, & Rose(1996)는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외로움 간 높은 연관성이 있다고 밝혔다.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사회적 관계 상황을 위협적으로 지각하기 쉬워 자신의 실수나 부족함을 타인이 알게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Flett, Hewitt, & Blankstein, 1991; Hewitt & Habke, 2008). 한 개인이 이러한 주위 상황에 대한 위협감과 두려움을 갖게 될 때에 보이는 사회적 반응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타인의 인정을 추구하는 반응으로, 타인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유지하지만 타인으로부터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면 쉽게 우울해 진다(Blatt & Zuroff, 1998; Lobel, Kashan, & Winch, 1987). 다른 하나는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는 모습으로, 타인과의 접촉을 적극적으로 피하고 정서적인 거리를 두며 자기개방을 쉽게 하지 않는다. 따라서 관계는 피상적인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Blatt & Zuroff, 1998). 이것은 자신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할 거라는 두려움에서 기인한다. 완벽주의자들은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완벽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애정이나 친밀감을 경험하

고 표현하는데 근본적인 두려움을 갖고 있다. 특히 중요한 타인이 자신에게 비현실적인 높은 기준을 부과한다고 지각하는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타인의 승인과 인정에 집착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가까워지면 자신의 불완전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그들로부터 거절당할 것이라는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스스로를 고립시키게 되어 대인관계적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김태곤, 2006; Burns, 1980; Flett, Hewitt, & Rosa, 1996; Flett et al., 1997).

이러한 결과들은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외로움이 관련 있음을 보여 준다. 외로움이란 사회적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으로서 객관적인 사회적 고립과는 다른 주관적 경험이며, 불쾌하고 고통스러운 경험으로 보고된다(Peplau & Perlman, 1982). 선행연구들을 통해 외로움은 잠재적인 병리적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어서(Asher & Paquette, 2003), 외로움이 증가할수록 우울 수준이 높아져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Cacioppo et al., 2006; Hawkey et al., 2003, Wei et al., 2005).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은 타인으로부터 완벽하지 않다는 평이 두려워 자신의 사고와 정서를 타인과 공유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어렵고 정서적으로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Burns, 1980). 특히 Vander Wleele et al.(2011) 연구에서도 사회적 상황에서 위축되고 철수되어 외로움이 오랫동안 지속될 경우 우울을 경험하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외로움과 우울과 정적 상관이 있다는 일관된 연구 결과와 상반되게, 다른 유형의 완벽주의는 외로움과 우울간의 관계에서 혼재된 관련성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우울과 정적 상관을 보이기도 하지만

우울과 관련이 없거나 완벽주의의 긍정적인 측면인 삶에 대한 만족감, 사회적 유대감, 긍정적 정서와 정적 상관을 보여 완벽주의의 적응적인 측면을 반영한다고 알려져 있다(김현정, 손정락, 2006; 전명임, 2009; Flett et al., 1991). 또한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일관되게 외로움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e.g., Flett, Hewitt, & Rosa 1996; Chang et al., 2008). 타인지향 완벽주의는 우울과 관련이 없거나(Frost et al., 1993), 긍정적인 측면에서 대인관계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타인에 대한 격려와 관심을 보인다고 보고되었다(Hewitt & Flett, 1991). 하지만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대인관련 스트레스와 상호작용하여 우울에 영향을 미쳐, 우울의 가장 강력한 예언변수로 보고된다(문경, 1998; 전명임, 2009; 한기연, 1993; Hewitt & Flett, 1991; Flett, Hewitt, & Blankstein, 1991; Hewitt, Flett, & Edger, 1996). 우울과의 관련성과 더불어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외로움과 일관되게 유의미하게 높은 정적상관을 보였다(e.g., Flett, Hewitt, & Rosa, 1996; Chang et al., 2008).

위에서 제시 하였듯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타인의 승인과 인정에 집착하는 특성이 있어 대인관계적 측면을 고려할 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즉 자기수용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Maccines; 2006). Ellis와 Harper(1997)에 의하면 자기수용(self-acceptance)이란 다른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하든지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자기수용은 이상적 자기와 현실적 자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Chandler, 1976), 자기수용이 낮을수록 완벽주의 수준은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Flett et al., 2003; Flett et al., 2002).

특히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우울과 관계에서 자기수용이 완전 매개를 한다고 보고되었다(Flett, et al., 2003; Scott, 2007). 그리고 Davies(2006)의 연구에서, 자기수용은 우울과 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여 삶의 만족감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도 자기수용이 우울과 높은 부적상관을 보였고(구희정, 2013, 김사라형선, 2005), 부정적 정서인 외로움과 관계에서도 부적 상관을 보였다(최현국, 2010).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사회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외로움은 자기수용 부족의 결과일 수 있으며, 자기수용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에 의해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는 출산 후 신체적 회복을 해야 하는 동시에 일차적 양육의 양적, 질적 책임을 떠맡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 어머니의 사회부과 완벽주의적 성향은 그러한 스트레스를 가중시킴과 더불어 자기수용을 어렵게 하여 외로움과 우울에 이르게 한다. 하지만 영·유아 자녀를 둔 주부를 대상으로 완벽주의가 미치는 심리사회적 영향에 관한 연구들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까지 완벽주의에 관한 논문들은 대부분 아동이나 대학생 또는 청소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김사라형선, 2005; 김정미, 2010; 김현정, 손정락, 2006; 정윤주, 2012), 국내에서 이루어진 자기수용에 관련된 연구들은 자기수용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주로 실시되어 왔고 자기수용과 부정적인 정서인 우울과 외로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우울과

정적관련이 있으며,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사회부과 완벽주의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수용은 감소되고, 자기수용이 감소되면 외로움이 증가되고, 결과적으로 우울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가설을 수립하여 변인들 간의 관계에 관한 경로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즉,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자기수용과 외로움이 순차적으로 부분매개한다고 가정하는 이중 매개모형을 설정하고, 구조방정식을 사용하여 이 매개모형의 적합성을 검토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5대 광역시 중 1 곳과 군에 해당하는 지역 1곳에서 거주하는 영·유아 자녀를 둔 주부 356명을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방문하여 아동의 보호자들에게 연구에 대한 설명과 동의를 얻은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누락된 항목이 있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47부를 제외한 309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309부 중 전업주부는 135명(43.7%), 취업주부는 162명(52.4%), 현재 휴직 중인 주부는 12명(3.9%)이었으며, 참여자들의 자녀수는 2명이 176명(57%)로 가장 많았고, 1명 87명(28.2%), 3명 41명(13.3%), 4명 이상이 5명(1.6%) 순이었다. 자녀의 나이분포는 각각 1세 자녀를 둔 주부가 27명(5.5%), 2세 39명(8%), 3세 75명(15.3%), 4세 51명(10.4%), 5세 90명(18.4%), 6세 105명(21.4%), 7세 99명(20.2%)으로, 6세 자녀를 둔 주부가 가장 많았다.

측정 도구

다차원 완벽주의 척도(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MPS)

본 연구에서 사회부과 완벽주의를 측정하기 위해 한기연(1993), 홍혜영(1995) 등이 번역하고 김연수(1998)가 재번역한 것을 이후에 이미화(2001)가 수정, 보완한 Hewitt과 Flett(1991b)의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를 사용하였다. 다차원 완벽주의 척도는 자기지향 완벽주의 15문항, 타인지향 완벽주의 15문항, 사회부과 완벽주의 15문항으로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부과 완벽주의 15문항만 사용하였고, 단일 변인으로 이용되었다. 각 문항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까지 7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고, 이 후 합산한 점수로 사회부과 완벽주의 수준을 측정하였다. 점수 범위는 최저 15점에서 최고 105점까지이며,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기연(1993)과 홍혜영(1995)의 연구에서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각각 .76과 .67이었고, 본 연구에서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71로 나타났다.

우울 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본 연구에서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Beck, Ward, Mock와 Erbaugh(1961)가 개발하고 이영호와 송종용(1991)이 번역한 우울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단일변인이며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1점에서 4점까지 평정되는 4점 척도로, 총점은 21~84점 범위에 있다. Beck(1967)은 31점 이하는 우울하지 않은 수준으로, 32~37점은 가벼운 우울증으로, 38~45

점은 우울증으로, 46~84점은 중한 우울증으로 분류하였다. 이영호와 송종용(1991)의 연구에서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86이었고, 본 연구에서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89로 나타났다.

자기수용 질문지(Unconditional

Self-Acceptance Questionnaire: USAQ)

본 연구에서 자기수용을 측정하기 위해 김사라형선(2005)이 번역한 Chamberlain과 Haaga(2001)의 무조건적 자기수용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각 문항은 전혀 그렇다(1점)에서부터 항상 그렇다(7점)까지 7점 Likert 척도로 구성된 단일변인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수용 능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김사라형선(2005)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α)는 .90, 본 연구에서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75로 나타났다.

외로움 척도(Revised UCLA Loneliness Scale: RULS)

본 연구에서 외로움을 측정하기 위해 Russell, Peplau와 Ferguson(1978)이 만든 UCLA 외로움 척도를 Russell, Peplau 및 Custrona(1980)가 개정하고 김교헌과 김지환(1989)이 한국적 상황에 맞게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20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된 단일변인이다. 점수범위는 최저 20에서 80까지로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외로움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김교헌과 김지환(1989)의 연구에서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83로 나왔고, 본 연구에서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90로 나타났다.

분석방법 및 절차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20.0를 사용하여 기술 통계 및 Pearson 상관분석을 하였다. 이후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LISREL 9.1 (Joreskog & Sörbom, 2013)로 공분산행렬을 이용하여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실시하였다. Barbara와 Linda(2013)에 의하면, 카이제곱(χ^2),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CFI(Comparative Fit Index) 및 SRMR(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이 모형 검증의 대표적인 부합도 지수로 사용된다. RMSEA가 .08 이하, CFI는 .90 이상, SRMR는 .08 이하일 경우 대체적으로 좋은 모형으로 채택할 수 있고, 세 가지 적합도 지수가 비일관적인 결과로 나타날 때, CFI와 SRMR 또는 RMSEA와 SRMR 지수가 위와 같은 기준에 해당이 되면 괜찮은 모형으로 본다(Hu & Bentler, 1999). 또한 모형 간 비교에서 두 모형이 등지모형(nested model)이므로 카이제곱 차이를 자유도 차이에 기반을 두고 평가하였다(Barbara & Linda, 2013). 마지막으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을 확인하였다.

결 과

경로모형을 분석하기에 앞서 자료의 정상성을 검증하기 위해 측정변인들의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 평균 및 표준편차, 그리고 변인 간 상관을 산출하여 표 1에 제시하였다. 먼저 측정변인들의 다변량 정규분포 가정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Bollen & Stein, 1992)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각 측정변인들의

표 1. 모형에 투입된 변인 간의 상관($n = 309$)

	1	2	3	4
1. 사회부과 완벽주의	1			
2. 자기수용	-.37**	1		
3. 외로움	.23**	-.29**	1	
4. 우울	.32**	-.36**	.42**	1
M	54.88	72.07	36.20	28.68
SD	7.77	10.10	9.35	6.97
왜도	-.20	.68	.22	1.01
첨도	.84	1.47	-.55	.91

** $p < .01$

왜도를 확인한 결과, 사회부과 완벽주의, 자기수용, 외로움, 우울은 각각 -.20, .68, .22, 1.01로 절대값이 2를 넘지 않았고, 첨도를 확인한 결과 .84, 1.47, -.55, .91로 절대값이 7을 넘지 않아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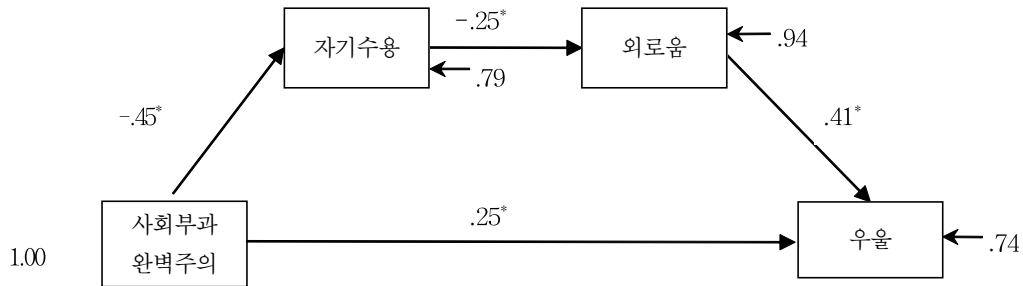
연구에 사용된 변인들에 관한 Pearson 상관분석 결과,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자기수용과 부적상관($r = -.37, p < .01$)을, 우울과는 유의미한 정적상관($r = .32, p < .01$)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수용은 외로움($r = -.29, p < .01$)과 우울($r = -.36, p < .01$)에 각각 유의미한 부적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각 관찰변인들의 총점들을 살펴보면, 사회부과 완

벽주의, 자기수용, 외로움, 우울은 각각 54.88, 72.07, 36.20, 28.68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들의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중간 수준, 자기수용은 중상 수준, 외로움은 중하 수준, 우울은 하 수준으로 보여 진다.

연구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분석하기 위해 표 2에 제시된 공분산행렬을 이용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의 공분산행렬이 모수치 공분산행렬과 차이가 없을 때 좋은 모형이라고 볼 수 있으며, Maximum Likelihood Ration Chi-Square(χ^2)를 통해 적합도를 평가하고 유의미한 차이가 없을 때 좋은 적합도로 볼 수 있다. 하지만 χ^2 은 사례수에 민감하여 작은 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나

표 2. 경로분석에 투입된 공분산행렬($n = 309$)

	1	2	3	4
1. 자기수용	102.61			
2. 외로움	-24.26	89.64		
3. 우울	-25.95	32.00	51.70	
4. 사회부과 완벽주의	-33.11	17.22	18.16	51.88



* $p < .05$, 그림에 제시된 계수는 표준화 수치임

그림 1. 자기수용과 외로움의 부분매개모형(연구모형)

타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모형에 대한 적합도의 차이를 의미 있게 보지 않고, 다른 적합도 지수를 함께 고려하여 평가하였다 (Barbara & Linda, 2013).

본 연구의 적합도 분석 결과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chi^2(2) = 19.17, p < .001$; RMSEA = .17; CFI = .93; SRMR = .07로 괜찮은 모형으로 나타났고, 연구모형은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자기수용은 감소하고($\beta = -.45, p < .05$), 우울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25, p < .05$). 사회부과 완벽주의를 통제할 때 자기수용은 외로움에 부적으로 영향을 주며($\beta = -.25, p < .05$),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자기수용을 통제할 때 외로움이 커질수록 우울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41, p < .05$). 결과적으로 사

회부과 완벽주의는 우울에 직접적인 효과를 주었고, 자기수용과 외로움을 통해 우울에 간접효과를 주었다. 즉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자기수용과 외로움이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났다.

다음으로 대안모형을 제시하여 연구모형과 비교를 통해 어느 모형이 더 적합한지 분석하였다. 대안모형으로는 완전매개모형을 그림 2에 제시하였고,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완전매개모형 적합도는 $\chi^2(3) = 42.83, p < .001$; RMSEA = .21; CFI = .84; SRMR = .13로, 부분매개모형 적합도가 완전매개모형 적합도보다 더 좋은 적합도를 제시하고 있다. 완전매개모형과 부분매개모형은 등지모형(nested model)이기 때문에 카이제곱 차이검증을 통하여 두 모형을 비교하였다. 두 모형 간 차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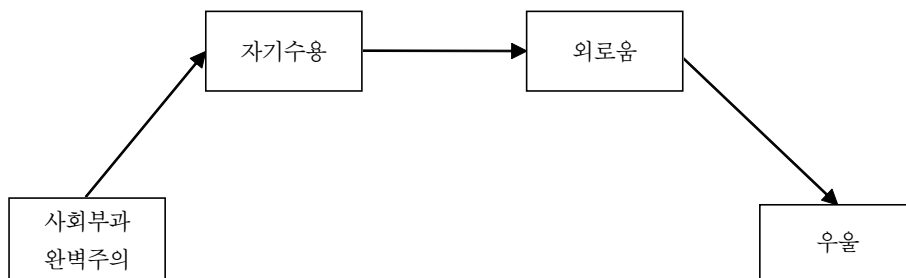


그림 2. 자기수용과 외로움의 완전매개모형(대안모형)

표 3. 모형들의 적합도($n = 309$)

	χ^2	df	RMSEA	CFI	SRMR	$\Delta\chi^2$	Δdf	p
부분매개모형	19.17	2	.17	.93	.07	23.67	1	.000
완전매개모형	42.83	3	.21	.84	.13			

표 4. 매개효과 검증결과($n=309$)

		경로		간접효과	95%신뢰구간			
					하한계	상한계		
사회부과 완벽주의	→	자기수용	→	우울	.07***	.032 .116		
사회부과 완벽주의	→		→	외로움	→	우울	.07***	.031 .114
사회부과 완벽주의	→	자기수용	→	외로움	→	우울	.13***	.085 .196

주. 표에 제시된 계수들은 비표준화 수치임. 간접효과의 유의성은 bias-corrected bootstrapping 방법으로 검증된 결과임.

*** $p < .001$

표 5. 변인들 간의 전체효과 및 직접효과

		경로		비표준화 계수					
				전체	직접	간접			
사회부과 완벽주의	→	자기수용		-.477	-.477	.000			
자기수용	→	외로움		-.273	-.273	.000			
외로움	→	우울		.275	.275	.000			
사회부과 완벽주의	→	우울		.283	.283	.000			
자기수용	→	외로움	→	우울	-.071	.000	-.071		
사회부과 완벽주의	→	자기수용	→	우울	.094	.000	.094		
사회부과 완벽주의	→	외로움	→	우울	.075	.000	.075		
사회부과 완벽주의	→	자기수용	→	외로움	→	우울	.417	.283	.134

없다면 더 간명한 모형을 선택하고, 두 모형 간 차이가 있으면 모형의 적합도가 더 좋은 모형이 지지된다(Barbara & Linda, 2013). 카이제곱 차이검증 결과, $\Delta\chi^2(1) = 23.67, p < .001$ 로 두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우울 간 관계에서 자기수용과 외로움이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경로모형이 사회부과 완벽주의에서 자기수용과 외로움을 통해 우울로 가는 완전매개 경로모형보다 더 양호함을 의미한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랩(bootstrap)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부트스트랩 결과에서 95% 신뢰구간 내 하한값(lower)과 상한값(upper) 사이에 0이 없으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해석한다(Shrout & Bolger, 2002). 표 5에 제시된 것과 같이 모든 경로들이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자기수용과 외로움을 통해 우울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변인들 간 전체효과 및 직접효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논 의

경쟁적이고 성취지향적인 현대 사회와 지나친 교육열 그리고 출산율 감소는 어머니의 완벽주의 성향을 더욱 가중시킨다. 하지만 완벽주의 성향이 높아도 자기수용 능력이 향상되면 부정적인 정서를 감소할 수 있다(Chamberlain & Haaga, 2001; Flett et al., 2003; 김사라형선, 2005 장은서 & 최연실, 2013; 김지윤 & 이동귀, 2013). 이에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영·유아 자녀를 둔 주부를

대상으로 사회부과 완벽주의, 자기수용, 외로움, 우울 관계를 알아보았다. 첫째, 사회부과 완벽주의, 자기수용, 외로움, 우울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보고, 둘째,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우울 간의 관계를 자기수용과 외로움이 순차적으로 매개 한다는 부분 이중 매개모형을 가정하고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셋째,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자기수용과 외로움이 완전매개 한다는 대안모형과 부분매개 한다는 연구모형을 비교하였다. 넷째,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자기수용과 외로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상관관계를 통해 변인들 간 관계를 살펴보면, 영·유아 자녀를 둔 주부의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외로움, 우울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자기수용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자기수용은 외로움, 우울과 부적 상관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높으면 우울이 증가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e.g., 장운주, 2012; Hewitt, Flett, & Edger, 1996; Chang et al., 2008).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타인이 자신에게 높은 기대와 기준을 부과한다고 인식하고,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타인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신념으로 인하여 우울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전명임, 이희경(2011) 연구와 허현정(2011)연구에서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긍정 정서와 삶의 만족도를 감소시키고, 부정 정서를 증가시킨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동일하게,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자기수용은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자기수용은 외로움과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이는 자기수용이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고(김경진, 2013), 대인관계 어려움은 타인과의 접촉과 사회적 활동 참여

를 줄이기에 외로움을 경험하게 된다(장윤아, 2014)는 선행 연구들과 동일한 맥락이다. 그러므로 자기수용 능력이 향상되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까지 수용할 수 있게 되어 대인관계를 향상시키고 그에 따른 외로움은 감소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로움은 우울과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외로움이 오랫동안 지속 될수록 우울을 예견한다는(VanderWleele et al., 2011)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둘째,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자기수용과 외로움을 매개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가설모형을 설정하여 이를 경로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우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자기수용과 외로움을 통해 우울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자기수용과 외로움이 부분 이중매개 역할을 한 것이다. 그리고 대안모형인 완전 이중매개모형을 제시하고 연구 모형과 비교 분석해 본 결과 연구모형인 부분 이중매개 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연구모형인 부분 이중매개 모형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를 실시한 결과 자기수용과 외로움이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우울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우울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자기수용과 외로움을 통해 우울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낮은 자기수용은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외로움의 원인이 되며, 외로움은 낮은 자기수용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우울의 원인이 된다. 이것은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우울 간 관계에서 자기수용과 외로움이 부분 이중매개를 한다는 가설이 지지된 것이다.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주부가 갖는 책임에 대한 부담감은 양육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양육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사회부과 완벽주의를 더 가중시키고, 자신과 타인 그리고 현실에 대한 수용은 낮아진다. 특히 낮은 자기수용은 대인관계에서 외로움을 유발하며, 이와 같은 외로움이 지속되면 우울을 경험하게 되어 자녀양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김지윤과 이동귀(2013) 연구에서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높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수용이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었고, 부정적인 정서인 외로움(최현국, 2010)과 우울 및 불안을 감소한다는(김사라형선, 2005) 선행연구에서처럼 자기수용은 높은 완벽주의로 인한 부정적인 정서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높은 주부를 대상으로 자기수용 능력을 높이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수용이 향상 되어 대인관계가 개선이 될 것이고, 대인관계가 좋아지면 외로움을 덜 느낄 것이다. 특히 영·유아 자녀를 둔 주부가 자기수용 능력이 증가하면 타인의 도움을 요청하고 받는 것이 수월해지고, 사회적 지지체계를 형성할 수 있어 주관적 외로움을 덜 느끼게 된다. 그러므로 우울감은 낮아 질 것이다. 이것은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높으면 우울이 증가하지만, 자기수용 능력이 향상되면 외로움과 우울이 감소된다는 선행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다(최현국, 2010). 연구 결과를 정리해보면,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외로움과 우울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고, 자기수용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드리고, 자신이 독립된 하나의 존재임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타인도 독립된 하나의 존재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오는 외로움과 우울을 감소시키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높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수용 증진을 통하여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감소시키고, 그로 인하여 외로움을 덜 느끼며 우울을 감소시키는 중재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 자녀를 둔 주부 대상으로 양육스트레스에 관련된 연구들이 많다(e.g., 문영경, 민현숙, 2008; 민하영, 이영이, 2009; 송연숙, 김영주, 2008; 예남희, 민하영, 2010; 이정선, 최영희, 2010; 이주옥, 2008). 하지만 어머니를 대상으로 완벽주의와 관련된 연구는 드물며 영·유아기 자녀를 둔 주부를 대상으로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관련된 부정적 정서인 외로움과 우울 그리고 긍정적 요인이 자기수용에 대한 연구를 시도 했다는 점이다. 둘째,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이 높으면 대인관계 차원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외로움의 지속은 우울로 연결된다. 이때 외로움을 감소시켜줄 긍정적인 자기수용의 매개역할을 확인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은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대한 비현실적인 수행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실망감과 자기 패배감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영·유아기 자녀를 둔 주부와 상담 전략을 수립할 때 자신에게 적절한 목표를 설정하게 하고, 실제적인 자기와의 불일치를 줄이는 것을 통하여 대인관계 개선과 외로움, 우울을 감소시키는 개입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비록 본 연구가 대도시와 중소 도시에 거주하는 것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광역시 1곳과 군지역 1곳에 거주하는 어머니들을 연구대상자로 삼았으나, 연구대상자의 다른 특성, 예를

들면 교육 수준이나 사회경제적 수준 등의 인구학적 특성들이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못하였다. 예로 자기수용은 교육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의 특성이 변인들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살펴 본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자기수용의 관계를 고려할 때 자기지향 완벽주의 수준도 자신의 실제 모습과 이상적인 모습의 괴리와 관련되는 만큼, 자기수용이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높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관련된 우울감 등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추후 연구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구희정 (2013).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 태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무조건적 자기수용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0(12), 295-315.
- 김경진 (2013). 대학생의 자아분화와 대인관계능력 간의 무조건적 자기수용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가천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기현 (2000). 맞벌이 부부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관련 변인 탐색.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교현, 김지환 (1989). 한국판 UCLA 고독척도. *학생생활연구*, 16, 13-30.
- 김미숙 (2005).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기와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사라형선 (2005). 어머니의 완벽주의와 아동

- 의 우울 관계에서 아동의 무조건적 자기수용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4, 461-481.
- 김선애, 한유진 (2009). 아버지의 양육수행,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지식이 부모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학회지, 18(1), 55-64.
- 김영희, 장래수 (2004). 부모의 완벽주의, 우울, 양육행동과 아동의 부적응 행동. 놀이치료연구, 8(1), 117-139.
- 김정미 (2010). 아동 및 청소년의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기존중감의 역할. 청소년학연구, 17(8), 79-104.
- 김정은, 김영희 (2009).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0(4), 2287-2301.
- 김지운, 이동귀 (2013). 대학생의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무조건적 자기수용과 자기개념 명확성의 매개효과 검증. 상담학연구, 14, 63-82.
- 김태곤 (2006). 완벽주의로부터의 해방. 서울: 미션월드.
- 김혜진, 유미숙, 하은혜 (2004). 완벽주의 성향의 발달 요인에 관한 연구: 부모의 양육태도, 가족의 기능적 특성, 부모에 대한 애착유형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1(3), 425-444.
- 김현정, 손정락 (2006). 대학생의 완벽주의와 자아존중감 및 우울,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 345-361.
- 노지영, 황혜선 (2012).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부모역할만족도가 0-3세 자녀와의 애착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 27-40.
- 문경 (1998). 완벽주의 차원과 자기효능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문영경, 민현숙 (2008).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성인애착과 불안, 우울 및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5), 165-176.
- 민하영, 이영미 (2009).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부갈등, 자녀 양육스트레스 및 애정-거부적 양육행동 간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6), 203-213.
- 박미경, 정경희 (2002). 일부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 외로움, 음주 및 건강지각에 관한 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8(1), 72-83.
- 박선영, 도현심 (1998). 가족기능 및 자아존중감과 청소년의 외로움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19(1), 229-244.
- 박소연, 진미경 (2013). 아동의 애착과 외로움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한국놀이치료학회, 16(4), 381-395.
- 박진아 (2011). 유아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모·자의 심리적응 및 모-자녀 관계에 관한 연구. 놀이치료연구, 1, 43-56.
- 송미혜, 송연숙, 김영주 (2007). 유아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2(5), 165-183.
- 송연숙, 김영주 (2008). 양육스트레스, 양육지식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비교 연구. 한국 열린유아교육학회, 13(3), 181-203.
- 신의진 (2011). 나는 아이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 서울: 걷는나무.
- 예남희, 민하영 (2010).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성인 애착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부부 갈등을 매개변인으로. 한국가

- 정관리학회지, 28(5), 67-74.
- 이영호, 송종용(1991). BDI, SDS, MMPI-D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 임상, 10, 98-113.
- 이주옥 (2008).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 영유아교육학회, 11, 41-61.
- 이정선, 최영희 (2010).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원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놀이치료학회, 13(1), 19-32.
- 장윤아 (2014). 청소년의 외로움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 부정적 인지의 매개효과.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장윤주 (2012). 아동의 자기지향 및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우울, 불안 간 관계에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대한가정학회, 50, 15-28.
- 장은서, 최연실 (2013). 초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완벽주의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자기수용이 매개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29, 373-394.
- 전명임 (2009).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우울,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유대감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미라, 강수경, 이방실, 김미정 (2014).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따른 유아의 인지 및 동작 발달의 차이. 열린유아교육연구, 19(5), 97-117.
- 장윤주 (2012). 아동의 자기지향 및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우울, 불안 간 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대한가정학회지, 50(1), 15-28.
- 최현국 (2010). 성인애착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기수용과 외로움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향숙, 한세영 (2011). 어머니의 완벽주의와 자아개념이 양육신념에 미치는 영향. 생애학회지, 1(2), 31-48.
- 하오령, 권정혜 (2006). 기혼 직장여성의 정신건강과 역할 만족도: 역할 갈등, 완벽주의 및 가족지지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 675-696.
- 한기연 (1993). 다차원적 완벽성: 개념, 측정 및 부적응간의 관련성.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홍미경 (2008). 어머니의 완벽주의 성향과 양육신념이 유아의 창의적 사고 및 창의적 인성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석인, 현명호 (2007). 완벽주의와 우울 관계에서 우울반응양식의 효과검증.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2007(-), 180-181.
- Asher, S. R., & Paquette, J. A. (2003). Loneliness and peer relational in childhood.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2, 75-78.
- Barbara G. Tabachnick & Ninda S. Fidell (2013). *Using Multivariate Statistics (6th ed.)*.
- Blatt, S. J. (1995). The destructiveness of perfectionism: Implications for the treatment of depression. *American Psychologist*, 50(12), 1003-1020.
- Blatt, S. J., & Zuroff, D. C. (1998). When and how perfectionism impedes the brief treatment of depress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6, 423-428.
- Burns, D. D. (1980). The perfectionist's script for self-defeat. *Psychology Today*. November, 34-52.
- Cacioppo, J. T., Hughes, M. E., Waite, L. J.,

- Hawkley, L. C., & Thisted, R. A. (2006). Loneliness as a Specific Risk Factor for Depressive Symptoms: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Analyses. *Psychology and Aging, 21*(1), 140-151.
- Chandler, T. A. (1976). A notes on the relationship of internality-externality, self-acceptance and self-ideal discrepancies. *Journal of Psychology, 94*, 1, 145-146.
- Chang, E. C., Sanna, L. J., Chang, R., & Bodem, M. R. (2008). A preliminary look at loneliness as amoderator of the link between perfectionism and depressive and anxious symptoms in college students: Does being lonely make perfectionistic strivings more distressing?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6*, 877-886.
- Chamberlain, J. M., & Haaga, D. A. F. (2001). Unconditional self-acceptance and psychological health. *Journal of Rational-Emotive & Cognitive-Behavior Therapy, 19*, 163-176.
- Cnic, K. A., & Booth, C. L. (1991). Mothers' and fathers' perceptions of daily hassles of parenting across early childhood.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3*(4), 1042-1050
- Davis, R. A. (2001). A cognitive behavioral model of pathological internet us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17*(2), 187-195.
- Ellis, A., & Harper, R. A. (1997). *A guide to rational living*(3rd ed.). North Hollywood, CA: Wilshire
- Kim, K. H., & Kang, K. (1997). Development of the parenting stress scale.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35*(5), 141-150.
- Flett, G. L., Besser, A., Davis, R. A., & Hewitt, P. L. (2003) Dimensions of perfectionism, unconditional self-Acceptance, and depression. *Journal of Rational Emotive Cognitive Behavior Therapy, 21*, 11-138
- Flett, G. L., Hewitt, P. L., & Blankstein, K. R. (1991). Perfectionism, self-actualization, and personal adjustment.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6*, 147-160.
- Flett, G. L., Hewitt, P. L., Blankstein, K. R. & O'Brien, S. (1991). Perfectionism and learned resourcefulness in depression and self-estee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2*, 61-68.
- Flett, G. L., Hewitt, P. L., Garshowitz, M., & Martin, T. R. (1997). Personality, negative social interactions, and depressive symptoms. *Canadian Journal of Behavioural Science/Revue canadienne des sciences comportement, 29*(1), 28-37.
- Flett, G. L., Hewitt, P. L., & De Rosa, T. (1996). Dimensions of perfectionism, psychosocial adjustment, and social skill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0*(2), 143-150.
- Flett, G. L., Hewitt, P. L., Oliver., & Mcdonald, S. (2002). Perfectionism in children and their parents: A developmental analysis. In G. L. Flett, & P. L. Hewitt(Eds.), *Perfectionism: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pp. 89-132).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Press.
- Frost, R. O., Heimberg, R. G., Holt, C. S., Mattia, J. I., & Neubauer, A. L. (1993). A comparison of two measures of perfection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4*, 119-126.
- Hawkley, L. C., Burleson, M. H., Berntson, G. G., & Cacioppo, J. T. (2003). Loneliness in

- everyday life: Cardiovascular Activity, Psychosocial Contest, and Health Behavio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1), 105-120.
- Hewitt, P. L., & Flett, G. L. (1990). Perfectionism and depression: A multidimensional analysis.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5, 425-438.
- Hewitt, P. L., & Flett, G. L. (1991). Perfectionism in the self and social context: Conceptualization, assessment, and association with psychopathology.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60, 456-470.
- Hewitt, P. L., & Flett, G. L. (1993). Dimensions of perfectionism. daily stress and depression: A test of the specific vulnerability hypothesi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2, 273-280.
- Hewitt, P. L., & Habke, A. M. (2008). The Impact of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on the Cognitive, Affective, and Physiological Experience of a Clinical Interview, *Psychiatry*, 71, 93-122.
- Higgins, E. T., Bond, R. N., Klein, R., & Strauman, T. (1986). Self-discrepancies and emotional vulnerability: How magnitude accessibility, and type of discrepancy influence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5-15.
- Hu, L., and P. M. Bentler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Alternatives", *Structure Equation Modeling*, 6, 1-55.
- Joreskog, K. G., & Sörbom, D. (2013). *LISREL 9.10 Student Edition for Window* [Computer software].
- Lobel, t. E., Kashtan, O., & Winch, G. L. (1987). The relationship between defense mechanisms, trait anxiety and need for approval.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8, 17-23.
- Peplau, L. A., & Perlman, D. (1982). Perspectives on Loneliness. In L. A. Peplau, & D. Perman(Eds), *Loneliness: A source book of current theory and therapy*, 1-18. New York: Wiley.
- Scott, J. (2007). The effect of perfectionism and unconditional self-acceptance on depression. *Journal of Rational-emotive and Cognitive-Behavior Therapy*, 25(1), 35-64.
- Strauman, T. J. (1989). Self-discrepancies in clinical Depression and Social Phobia: Cognitive Structures that Underlie Emotional Disorder?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8, 14-22.
- VanderWeele, T. J., Hawkey, L. C., Thisted, R. A., & Cacioppo, J. T. (2011). A marginal structural model analysis for loneliness: Implications for intervention trials and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9(2), 225-235.
- Veroff, J., Douvan, E., & Kulka, R. (1981). *The inner America: A self-portrait from 1957 to 1976*. New York: Basic Books.
- Webster-Stratton, C., & Hammond, M. (1998). Maternal depression and its relationship to life Stress, perceptions of child behavior problems, parenting behavior and child conduct problem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6, 299-315.
- Wei, M., Russell, D. W., & Zakalik, R. A. (2005). Adult attachment, social self-efficacy,

self-disclosure, loneliness, and subsequent depression for freshman college student: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4), 602-614.

Weiss, R. S. (1982). *Issues in the study of loneliness*. In L. A. Peplau & D. Perlman (Eds.), *Loneliness: A source book of current theory research and therapy* (pp.71-80). New York: Wiley.

1차원고접수 : 2018. 4. 11.

심사통과접수 : 2018. 5. 28.

최종원고접수 : 2018. 6. 16.

Mediating Effects of Self-acceptance and Lonelin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nd Depression among the Mothers with Infants or Toddlers

Joung, Mi Hyun

Kang, Young-Shin

Department of Psych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acceptance and lonelin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nd depression of housewives with children in infancy and early childhood. The participants of the study consisted of 356 mother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correlation analyses confirmed that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loneliness and depression, an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self-acceptance. Second, path analysis showed that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indirectly affected depression through self-acceptance and loneliness and directly affected depression, which supported a double mediation effect hypothesis. Third, the research model with a double mediation was compared with comparative model which has full mediations of self-acceptance and loneliness, the latter with better goodness-of-fit.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es supported the hypothesized partial double mediation effects of self-acceptance and loneliness. Implications, limitations and suggestions of the findings were discussed.

Key words :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depression, loneliness, self-acceptance, mothers with infants